

## 도시판자촌지역 주민의 정보통신기술 이용 및 비이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서울 개미마을, 녹천마을, 백사마을 중심으로 -

최영훈\*\*, 정진경\*\*\*

**요약** 본 연구는 도시판자촌지역의 정보통신구조로부터의 배제, 저소득층으로서 도시판자촌 주민들의 동질적인 정보통신 이용행태, 결핍요인에 의한 도시판자촌 주민들의 정보통신 비이용 원인 등 3가지 기본 가정 검증을 위해 결핍관점과 선택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조사지역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주민들의 정보통신기기 보유율 등을 보았을 때 도시판자촌이 근본적으로 정보통신구조에서의 배제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웠다. 둘째, 인터넷 이용여부 및 이용용도 등 정보행태에서 보았을 때, 이들 지역주민의 인터넷 이용행태는 성별, 연령, 직업, 자녀유무, 판자촌의 관광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상이하며 따라서 동질적인 정보통신 이용행태를 설명하기 어려웠다. 셋째, 도시판자촌지역 주민의 정보통신 비이용 원인으로 경제적·인지적 결핍에 의한 요인들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삶과 생활에서의 의미, 대리인의 존재 등 각자 처한 상황에서의 선택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학술적 및 정책적 시사점이 제시된다.

주제어: 도시판자촌, 정보통신기술 이용비용, 정보격차, 결핍·선택이론

## Use and non-use of ICTs: the case of three urban ghettos in Seoul Metropolitan City

Younghoon Choi, Jinkyung Jung

**Abstract** The authors utilized two contested perspectives on the use and non-use of ICTs, especially the Internet, to verify three assumptions of urban ghettos as fundamentally excluded from the ICT structure, ghetto people as behaving in the same way, and deficiency as the sole explanatory variable of their non-use. The first assumption that the urban ghettos would be fundamentally excluded from the urban ICT structure can be nullified by our finding about the prevalence of ICTs in that area, albeit apparent lower level of access to ICTs compared to that of the urban core. The second assumption that the urban ghetto residents would display the same information behaviors would be challenged by our finding that the availability and usages of the Internet would be hardly consistent by gender, age, occupation, family size, and locational characteristics. The third assumption that deficiency would capture the Internet non-use by ghetto residents was found very tenable but could be rivaled by the choice perspective that use or non-use is simply a result of situated choic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suggested.

Keywords: urban ghettos, ICT non-use, digital divide, deficiency and choice theory

2012년 5월 21일 접수, 2012년 5월 22일 심사, 2012년 6월 15일 게재확정

\* 이 연구는 2010년 광운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일부 지원받아 이루어짐

\*\*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cyhoon@kw.ac.kr)

\*\*\* 광운대학교 부교수(whitenap@kw.ac.kr)

## I. 서론

이 글은 도시판자촌<sup>1)</sup>지역 거주주민들의 정보통신 기술 이용 및 비이용 행태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별성을 확인하여, 도시판자촌지역에 대한 학술적 그리고 정보화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에서는 도시판자촌을 '경제적으로 저소득층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지닌 사람들이 도시의 주변부에 강제적 또는 자생적으로 형성한, 도심 및 도시내 다른 지역과 지리적으로 구분되는, 다소 밀집된 도시주거지역'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도시판자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이들의 대상으로서의 특수성, 도시판자촌의 파급효과 및 정보격차에 관한 학술적 논의의 보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도시판자촌지역의 특성은 지리적 맥락, 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지역구성의 과정적 성격이다. 도시판자촌은 자생적 또는 부분적으로 외생적으로 도시내 특정한 지역(변두리, 산꼭대기 등)이라는 지리적 맥락적 특성을 지닌다. 심지어는 도로 하나를 두고 도시내 지역사회와 판자촌이 구분되기도 한다(장덕현, 2006). 지역사회와 판자촌의 구분은 양자간의 정보소통의 약화 또는 부재로 이어지는데, Dordick, et al.(1969)은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도시판자촌지역의 고립 및 경제적 낙후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지리적 구분은 도시내 중심부 또는 지역사회와 주변부 또는 판자촌 사이에 사회적 분리, 그리고 주변부 또는 판자촌을 더욱 주변부화 하는 주변부 한계화를 심화시킨다. Sassi(2005)에 의하면, 이러한 지리적 맥락이 도시내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정보통신격차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다. 결국 정보통신구조로부터 배제되는 제3의 계급으로서의 최하층의 상당부분이 도시판자촌 주민들로 구성(Lash, 1994)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판자촌의 지리적 맥락, 주민의 경제적 열악함, 정보통신구조로부터의 배제 등과 같은 기존의

논리들은 도시판자촌의 '과정적' 성격(정연우, 2010: 129)을 고려하면 재해석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 도시판자촌의 주민적 구성은 그 발생 이후 사회경제적 상황 및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다양화되어 왔다. 인적 및 가구구성, 연령, 직업, 소득 등에 있어서, 도시판자촌 주민들 사이에는 동질성만큼이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정연우, 2010; 조문영, 2001). 도시판자촌 주민의 동질성과 차별성의 공존현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도시판자촌이 정보통신구조로부터 근본적으로 배제된다는 기존 주장(Dordick, et al, 1969; Sassi, 2005)은 경험적으로 검증을 요한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의 정보화 노력을 통해 도시지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정보화수준이 높다(김병록, 2001; 이성우 외, 2004; 김결 외, 2010)는 점에서도 기존의 도시중심부와 도시주변부 이분적인 정보격차 주장은 검증되어야 한다.

도시판자촌은 정부의 도시재개발정책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에 있지만, 도시내는 물론 도시 사이에서도 도시개발정책의 판자촌 해체 및 형성의 파급효과가 발생해왔고 발생하고 있다. 기존 도시재개발방식은 '원주민의 80% 이상이 마을을 떠나야 하는 공동체 파괴의 전략'(김수현, 2011)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재개발방식은 재개발에 의해 감소된 도시판자지역이 외곽지역의 판자촌지역 신설로 이어지는 파급효과를 불가피하게 지닌다. 이 같은 기존의 재개발방식이 지속되는 한, 정보통신구조에 있어서 도시판자촌의 이웃지역 및 도시중심부와와의 차이 그리고 도시판자촌 내에서의 공통성과 차별성은 지속적으로 연구의 주제가 될 수 있다.

도시판자촌의 정보통신기술 이용 및 비이용은 기존의 학술적 논의에서는 물론 정책적 논의에서도 상대적으로 누락되어 왔다. 정보화 및 정보격차 등에 관한 기존의 논의에서 도시판자촌지역은 하나의 독립적인 연구대상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계층변수(예, 저소득

1) 판자촌에 대한 학술적인 용어는 빈민촌으로 개념화될 수 있지만, '빈민'이라는 용어는 이데올로기를 담은 개념으로 이 연구의 맥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판자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층) 또는 보다 포괄적인 지역변수(도시)에 내포되는 개념이었다. 지역적 맥락에서의 정보화 및 정보격차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전국적인 관점에서 지역간의 정보격차(Wilson, et al., 2003), 도시와 농어촌간의 정보격차(김병록, 2001; 김태일 외 2007), 특정권역 사이의(예,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정보격차(김주찬 외, 2006), 격오지 정보격차(예, 정보화마을)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지역의 정보격차를 다룬 연구(이성우 외, 2004; 김걸 외, 2010)도 있으나, 이러한 연구도 자치구별(서울지역)로 정보화수준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하는 정도였다. 기존 논의에서는 도시판자촌 거주자 역시 '저소득층'이라는 분류변수로 포괄되는 사회계층범주로 포함되어 그 특징이 희석되어 왔다. '저소득층'은 농어민, 장애인과 함께 정책적 조치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집단으로 정보격차통계 산출을 위한 변수로서 활용되어 오고 있으나(김은정 외, 2008), 이들은 개념적으로 완전히 배타적이지 않다(Payne, 2006). 결과적으로 도시는 지역 또는 농어촌과의 비교론적으로 주로 활용되어 도시 자체에 초점을 둔 논의는 상대적으로 매우 드물며, 도시 내의 정보격차를 다룬 경우도 행정단위별 격차를 다룬 정도이다. 정보격차통계를 활용하면 도시내 저소득층의 정보격차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으나, 도시 내에서의 지리적 맥락에 따른 도시판자촌 주민의 정보격차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이 글은 도시판자촌 거주자들의 다양성을 전제로, '도시판자촌 거주자들은 정보화로부터 근본적으로 배제된 집단'이라는 기존의 주장과 '도시판자촌 거주자들은 저소득층으로서 비자발적 이유(경제적 이유, 이용의 어려움 등)에 의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존의 주장 등을 도시판자촌 거주자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탐색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 검증을 통해 도시판자촌 거주자들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및 비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의 독특성을 밝히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도시판자촌 주민들의 정보이용 및 비이용 행태에 관한 다음 3가지 가정을 면접조사 결과를 통해서 탐색하고자 한다. 첫째는 도시판자촌은 정보통신구조에서 근본적으로 배제된 지역이라는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은 도시의 타지역과의 지리적 분리로 인해 정보통신격차의 발생이 일어나며(Sassi, 2005) 도시기능에서 분리되어 지식정보생산적 기능이나 기관이 부재함은 물론 주거측면에서도 지식생산적 수준이 낮은 기술에 의존(Lash, 1994)함으로써 정보통신구조로부터 배제되는 계급으로서 최하층으로 이루어진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둘째는 도시판자촌 주민은 저소득층으로서 동질적 정보행태를 보인다는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은 도시판자촌주민은 정보화정책에서 저소득층으로 분류(김은정 외, 2008)되어 비이용자의 부류에 포괄적으로 속하게 되고, 정보통신기술의 축적성(Van Dijk, 2000)으로 인해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능력이 뒤떨어지거나 비이용자가 되며,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오락 등에 국한된다(Attwell, 2001)는 논리에 근거한다.

셋째 그리고 결과적으로 판자촌 주민 중 정보통신기술 비이용자의 행태는 결핍요인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가정이다. 이는 판자촌 주민의 비이용 행태는 경제적, 물질적, 인지적 결핍에 의해 설명된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 II.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및 비이용을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들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및 비이용은 결핍(Deficiency) 관점과 선택(Choice) 관점과 같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이 두 관점은 이용과 비이용의 성격, 이용과 비이용의 원인, 이용자와 비이용자에 대한 구분 등에서 다른 해석을 보인다.

## 1. 결핍의 관점

결핍의 관점은 본질적으로 기술합리주의 시각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은 모든 개개인에게 본질적으로 소망스럽고 유익한 활동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은 '정상적' 행위이고 비이용은 '비정상적' 행위로 간주된다(Selwyn, 2003: 106). 합리적인 개인이라면 이러한 기술을 당연히 이용하게 되는데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 행위는 비합리적인 행위가 되고, 이 비합리적 행위는 개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 즉 결핍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이용은 '문제'가 되며, 정부의 차원에서는 해결 또는 완화해야 할 정책문제 또는 정책대상(Schneider, et al., 1993)이 된다.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합리성의 증진-즉 정보통신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지속적인 이용의 촉진-과 함께, 비합리성의 해소-즉 정보통신기술의 비이용자를 이용자로 전환-하는 것이 된다. 이를 논리적으로 연장하면, 결국 정보통신기술의 비이용에 대한 정부의 접근은 이용자와 비이용자 사이에 관찰되는 격차, 즉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결핍의 관점은 정보통신기술의 이용/비이용자의 관점 보다는 정보통신기술의 개발자나 정보화를 추진하는 국가 관점을 보다 더 반영한다.

비합리성의 원인이 된 개인적 결핍의 요소로는 경제적 또는 물질적 결핍 그리고 지적 또는 심리적 결핍 요인들이 주로 제시되어 왔다. 이 중에서도 경제적·물질적인 결핍은 개인의 정보통신기술 이용 또는 비이용을 가르는 요인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왔다(Selwyn, 2003: 102). 이에 따르면, 경제적 결핍은 컴퓨터나 인터넷 등의 보유, 특히 가구내 접근성을 결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결정요인이다. 접근성의 확

보가 반드시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Selwyn, 2006: 275). 경제적 결핍의 중요성은 단순히 접근성을 넘어서, 정보통신기술 이용의 성격이나 빈도 그리고 이용 유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있다(Murdock, et al., 1996; in Selwyn, 2003: 102). 나아가 가구의 소득수준은 단순히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행태(예,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에도 영향을 주기도 한다(정재기, 2011).<sup>2)</sup> 고령자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주된 장소가 가정이라고 한다면, 경제적 결핍은 이용비이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막노동 일을 하는 사람이나 여성들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Morris, et al., 2007). 심지어 경제력은 연령, 학력 수준과 함께 총량적 개념으로서의 정보격차의 주원인이 된다(정영호 외, 2010).<sup>3)</sup>

인지적 결핍의 관점에 따르면, 개인의 정보통신기술 이용 및 비이용은 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능적 능력과 지식, 그리고 태도 등 심리적·지적 요인에 달려 있다고 본다(Selwyn, 2003: 102-103). 인지적·심리적 결핍요인은 기능적 능력이나 지식 자체의 결여(van Deursen, et al., 2010; Rogers, 2003), 기존 기술과의 양립성이나 상대적 이점(Rogers, 2003),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초기 경험의 성격(Selwyn, 2006),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관심(Morris, et al., 2007)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태도(Schmacher, et al., 1993; Morris, et al., 2007) 등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된다. 이외에도 접근성의 제한 또는 결여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관심의 결여 같은 인지적 결핍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Morris, et al., 2007). 인지적 결핍은 고령층 일반은 물론, 고령층에서도 연로할수록 더 비이용의 원인이 된다(Morris, et al., 2007). 인지적 결핍에 내재

2) 이에 반해, Rhee, et al.(2004)은 가족의 지지(가구내 인터넷사용자의 수로 측정)가 우리나라의 인터넷의 이용비이용을 설명하는 보다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한다.

3) 이들의 연구에서 정보격차점수의 구성지수요인(Composite Index Variables)과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정보격차요인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경제적 변수의 계수값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 가구소득으로 측정된 '경제력'은 연령 및 학력 변수와 함께 2005~2009년의 정보격차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요인이었다.

한 지적·심리적 원인으로 인해 가족·친구 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의 존재 여부가 이용/비이용에 영향을 미친다(Rhee, et al., 2004; Paul, et al., 2005; Morris, et al., 2007).

결핍의 관점은 정보통신기술의 이용과 비이용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가정을 담고 있다. 하나는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자와 비이용자에 대한 이분법적인 구분이다. 비록 Rogers의 혁신확산이론에서 초기이용자에서 낙오자에 이르는 혁신확산주기 상의 이용자를 구분하지만, 결핍의 관점에서는 이용자와 비이용자라는 이분론이 지배한다. 둘째, 비이용자는 '문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들은 언젠가는 이용자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낙오자'로 간주된다(Rogers, 2003). Rogers(2003)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은 이전의 기술 또는 방식보다 '상대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용의 확산이 이루어지면 현재의 비이용자들도 뒤늦게라도 이용자의 반열에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 2. 선택의 관점

결핍관점에 대한 비판으로 제시된 선택의 관점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는 주로 선택(Use/Nonuse as Choices)의 문제라고 간주한다(Selwyn, 2003; 2006). 선택관점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상황 속에서 내린 선택'(Situating Choice)이다. 즉,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또는 비이용은 결핍요인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개개인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내린 선택이다. 선택관점에서도 결핍관점에서 제시된 경제적 물리적 요인이나 심리적 인지적 요인들이 존재하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핍요인에도 불구하고 비이용자들의 경우 자신들의 삶 속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비이용이 자연스런 삶의 과정이라는 점(Selwyn, 2006: 286)이다. 정보통신기술의 이용·비이용은 개개인의 기회구조에 따라 개개인이 삶속에서 내리는 선택의 결과이며, 이는 기술에

따라서도 상이할 수 있다(Selwyn, 2003: 110-112). 현재의 처한 사정으로 인해 비이용하지만 이러한 사정의 변화가 생기면 이용자로 전환될 수 있고, 이용하는 경우라도 어떤 기술은 사용하지만 다른 기술은 사용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선택관점의 주장이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비이용은 사회적 성격(Selwyn, 2006: 112)을 지니며, 선택관점은 상황적 정보화 접근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선택관점에서 이용 및 비이용이라는 '상황적 선택'(Situating Choice)을 설명하는 것은 '기술이용 맥락'(Technology use Context)이다. 이러한 기술이용맥락에는 '정보통신기술 자체가 필요 없는 삶의 방식', '주변 친구들 중 정보통신기술 이용자 부재', '가정 또는 친구 중 대리인의 존재',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 이용에서 자녀학습 우선' 등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이 삶에서 주변적인 것이거나 무관한 경우 또는 가구 내 접근성이 있음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비이용의 원인으로 제시된다(Selwyn, 2006; Morris, et al., 2007; Gilbert, et al., 2008; Lee-Gosselin, et al., 2009). 예를 들어, Selwyn(2006: 284-287)의 면접연구에서 피면접자들은 '생활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용 의도나 필요성이 전혀 없다', '오히려 직접 찾아다니는 것이 더 좋다', '야간 직장인이어서 아침 나절에 퇴근하는 사람', '집에 있으면 가사 일을 돌봐야 하기에 집에서 컴퓨터 등을 하지 않는다', '직장업무 스케줄로 인해 정보통신기술을 여가활용으로 사용할 시간이 없다', '컴퓨터를 사용하고 싶을 땐 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면 된다' 라고 답하였다. 여기서 마지막 이유 즉 '대리인을 통한 정보통신기술 이용'은 결핍이론과 정반대된다. 이러한 대리인에 의한 이용(Use-by-proxy)은 분명 결핍관점에서는 '비이용'이면서 선택관점에서는 '상황적 선택'에 의한 간접이용이 된다.<sup>4)</sup> 이와는 전혀 상반되게도, 선택관점에 따르면 가정내 정보통신기술 이용자가 있는 경우 오

히려 비이용을 유발할 수 있다. Selwyn(2006: 285-286)은 ‘컴퓨터가 자녀 방에 있어서 부모가 사용하지 못한다’, ‘정보화교육이 너무 기초적인 것이어서 응용하지 못한다’, ‘자녀들이 작동 잘 안 되는 컴퓨터를 주어서’, ‘자녀가 컴퓨터를 노트북으로 바꾸어 가지고 다닌다’ 등 결핍이론에서의 사회적 지지와 정반대되는 비이용의 원인들을 제시한다. Selwyn(2006)의 연구는 나이와 직업이 다른 인구 사회학적 요인이나 건강요인보다 이용·비이용을 결정하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수임도 보여준다. 고령자 중에서는 성별에 의한 차이도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elwyn, 2006).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이용자와 비이용자라는 이분법적 논리는 유지되기 어렵다. 선택과점에서는 이용과 비이용의 연속선에서 이용의 정도나 빈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이용자가 제시된다(Selwyn, 2006: 275). 아울러 비이용자의 경우도 평생 한번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지 않은 완전한 또는 절대적 비이용자에서부터 이전에 이용경험이 있으나 조사의 조작화 된 시간 범위 내에서 이용한 적이 없는 사람까지, 그리고 조사대상이 된 기술에 따라서, 이용과 비이용이 혼합된 이용자 또는 비이용자의 모습을 지닐 수 있음도 선택관점이 강조하는 비이용자의 특성이다.

### Ⅲ. 조사방법

#### 1. 면접조사방법

이 연구를 위한 조사는 서울특별시 소재 개미마을(혹은 빛그린어울림마을) (세검정로 및 흥제동), 녹천마을 (월계동), 백사마을 (중계본동) 등 3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일대일 면접 또는 2~3명의 주민을 함께 면접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면접은 주로 각 동네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면접 취지를 설명하고

면접에 응해줄 것을 요청한 후 수락한 경우에 한해 이루어졌다. 면접은 2011년 8월 26일(금)과 27일(토) 이틀에 걸쳐 매일 12:00~18:00 사이에 실시되었다. 면접은 조사원 4인이 행하였으며 조사원들은 이 글 저자들이 소속된 학과의 2-3학년생들로서 조사 전 조사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2시간에 걸쳐 조사방식 및 조사윤리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았다. 조사원들은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화에 대한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이었다. 조사원으로 대학 학부생을 활용한 이유는 조사원 교육과정에서 연구자인 대학교수들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면접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클 수도 있다는 조사원들의 조언에 따른 것이다.

이 연구의 주제, 즉 이용과 비이용에 관련된 정보통신기술은 ‘인터넷’에 초점을 두었다. 다만 스마트폰과 같이 인터넷 기능이 내장되어 인터넷이 이용 가능한 기기의 경우는 스마트폰 자체에 대한 언급보다는 이것이 지닌 인터넷 기능에 한정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이 연구에서는 판차촌 주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의 보유 및 활용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 핸드폰,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모두 조사하였다

면접조사방식은 반구조화 된 방식을 취하였으며, 면접에서는 사실정보와 인식 및 행태정보를 묻고자 하였다. 사실정보는 성별, 연령, 가족구성, 생계수단, 주거형태, 취학자녀 동거 여부, 그리고 주변정보 등이고, 인식 및 행태정보는 생활욕구, 정보통신기술 보유상태와 이용도, 이용에 따른 이점 및 불편에 대한 인식, 정보통신기술 비이용의 이유, 향후 활용의사, 정보통신기술 이용과 관련한 지원 요청 사항 등이었다. 이 중 인식 및 행태 정보는 면접자가 보유상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용 여부 및 용도를 후속하여 질문하면서 피면접자가 자유롭게 답변하도록 하고, 빠진 사항에 대해서만 추가로 질문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피면접자 1인당 소요된 시간은 약 30~40

4) 2000년대 초반 미국항공사 Continental Airline의 ‘클릭 한번이면 비행기표를 집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왜 직접 하려고 합니까? 집에 있는 누구에게 부탁하세요’ 라는 홍보문구는 선택관점의 상업적 응용의 대표적인 예일지도 모른다.

분이었다.

면접조사에서는 자료수집의 수준을 응답자 개인과 가구로 하였다. 비록 자료수집을 위해 피면접자 개인을 접촉하였지만, 가구 전체의 정보통신기술의 보유 실태, 이용비이용 실태 및 이유 등 가구차원의 정보도 함께 수집하였다. 면접 조사에서 조사원들은 단순히 이 연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면접도중 정보통신기술을 배우거나 활용하고 싶은 피면접자들에게는 정부의 지원제도나 인근의 컴퓨터교육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 2. 피면접자 및 가구의 특성

면접에 응한 피면접자는 총 25명이며, 지역별로는 개미마을 14명, 백사마을 7명, 녹천마을 4명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10명, 여자가 15명이고, 연령대로 보면 10대 5명(남 3, 여 2), 20대 1명(남), 30대 3명(남 1, 여 2), 40대 3명(남 1, 여 2), 50대 2명(남 1, 여 1), 60대 6명(남 1, 여 5), 70대 5명(남 2, 여 3)이다.

동거하는 가족수는 20대 1명의 가구를 제외하면

〈표 1〉 피면접자 및 가구의 사회경제인구학적 특성

응답자	지역	나이	성별	가족수	주소득자	직업	주거	취학자녀
1	홍제	35	여자	4	배우자	학원버스운전	전세	0
2	홍제	74	여자	3	자녀	인쇄업	전세	0
3	홍제	69	여자	3	배우자	경비원	전세	1
4	홍제	68	남자	2	배우자	국민연금	자가	0
5	중계	16	여자	4	부모	학생	자가	0
6	중계	69	여자	2	배우자	막노동	자가	0
7	홍제	37	남자	3	본인	음식배달	자가	0
8	홍제	71	여자	2	본인	-	전세	0
9	홍제	42	여자	4	배우자	막노동	전세	2
10	중계	15	남자	4	부모	학생	자가	0
11	월계	55	남자	4	본인	수퍼운영	자가	0
12	월계	40	남자	2	본인	제과점근무	자가	0
13	월계	67	여자	3	본인	조립산업	전세	1
14	중계	15	여자	6	부모	학생	자가	0
15	홍제	38	여자	4	본인배우자	이사용달	자가	2
16	홍제	17	남자	2	부모	학생	전세	0
17	홍제	78	남자	2	-	-	자가	0
18	홍제	49	여자	3	배우자	일용직	전세	1
19	홍제	55	여자	4	배우자	직장	전세	2
20	홍제	76	남자	2	-	-	전세	0
21	중계	70	여자	2	-	자녀	자가	0
22	홍제	20	남자	1	본인	아르바이트	월세	0
23	중계	15	남자	4	부모	학생	월세	0
24	중계	69	여자	3	배우자	폐지수집	자가	0
25	월계	69	여자	3	-	금리이자	자가	0

주: 나이/성별: 피면접자; 주소득자: 피면접자와의 관계로 표기; 가족수: 동거가족수; 직업: 주소득자의 직업

모두 2~4명으로, 이 가운데 초등·중등·고등·대학교 취학자녀를 둔 가구 수는 총 10개 가구이다.

경제활동을 통해 가계소득을 버는 사람이 거주주인 경우가 14가구, 동거하는 자녀인 경우가 4가구,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자가 없는 경우가 6가구, 그리고 아르바이트와 부모님이 보내주는 용돈을 주소득으로 하는 20세의 단독가구 1개 가구였다.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없는 6개 가구의 경우 주 소득원은 노령연금이나 국가유공자연금, 자녀가 보내주는 생계비, 예금이자 등이었다.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구성원이 있는 가구의 경우, 직업이 막노동, 경비원, 식당배달원, 식당도우미, 계약점 아르바이트, 학원버스운전 등과 같은 신분이 불안정한 직업 또는 일용직이 11가구이고, 인쇄업, 건축/의류업 겸업, 수퍼운영, 소규모 용달 등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별이가 가능한 가구가 4가구, 그리고 나머지 10가구는 단순히 직장이라고 응답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가구이다. 주거형태면에서는 자가인 경우가 13가구, 전세인 경우가 10가구, 그리고 월세가 2가구이다.

## IV. 자료의 분석과 논의

### 1. 판자촌 가구의 정보통신기술의 접근성

〈표 2〉에서 보듯이, 정보통신기술 접근성, 즉 보유 실태를 보면, 컴퓨터 보유가구는 76%(19개 가구),<sup>5)</sup> 인터넷 연결 가구는 68%(17개 가구), 핸드폰·스마트폰 보유 가구는 96%(24개 가구), 집전화 보유 가구는 68.0%(17개 가구)이다.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7개 가구 중 1개 가구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었다. 컴퓨터를 보유한 가구는 거

의 대부분(19개 가구 중 17개 가구) 인터넷 연결을 하고 있었으며, 컴퓨터에 인터넷 연결이 되어있지 않는 1개 가구는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포함하면 인터넷 연결가구 비율은 72.2%가 된다.

면접에서 보유 컴퓨터의 성능의 높낮이나 보유 컴퓨터가 최근 모델인지는 질문하지 않았으나 대다수 피면접자의 경우 컴퓨터 성능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컴퓨터 보유 가구 중 컴퓨터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1개 가구, 컴퓨터가 오래되어 고장이 자주 난다는 1개 가구를 제외하면 컴퓨터에 대해 불만을 표한 피면접자는 없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거주지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어려움이 없다고 말한 1개 가구도 있었지만, 동네에 와이파이 이용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제한이 있다고 말한 가구도 3개 가구가 되었다.<sup>6)</sup>

컴퓨터 및 인터넷 연결 여부에 대해 가구주의 연령이나 가구주의 직업에 따른 일관된 유형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체로 가구주가 30~50대인 가구의 경우 1개 가구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었으며, 노부부가 사는데도 인터넷까지 연결된 가구도 5개 가구나 되었다. 폐지 주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노부부 가구의 경우 인터넷 연결이 안 되어 있었지만, 월수입이 12만원인 가구나 막노동 혹은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버는 가구 그리고 소득별이를 하지 않는 노부부 가구에도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었다.

가구주의 연령이나 직업 보다 명료하게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동거가족 중 취학자가 있는지 여부였다. 동거 가족 중 취학자녀 또는 손자 손녀가 있는 11개 가구 중 1개 가구를 제외한 9개 가구<sup>7)</sup>에서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었다.

5) 스마트폰을 보유한 가구들은 모두 7개 가구였는데, 이들 가구는 모두 컴퓨터와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터넷은 1개 가구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결이 되어 있었다.

6) 거주지가 와이파이존 밖에 있는 이들 3개 가구의 경우 집에서는 주로 3G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고, 데이터 무제한이용제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의 사용이 제한되어 불만이라고 말하였다.

7) 이 가구는 초등학교 6학년생을 둔 가정으로, 가구주의 국가유공자 연금과 노모의 조립산업 수당으로 생계를 꾸려 가고 있다.



〈표 2〉 정보통신기술 접근성 실태

피조사자	나이	가족수	직업	취학자녀	ICT 보유(가구)			
					컴퓨터	인터넷	핸드폰	집전화
1	35	4	학원버스운전	0	○	○	○	×
2	74	3	인쇄업	0	○	○	○	×
3	69	3	경비원	1	○	○	○	○
4	68	2	국민연금	0	○	○	○	○
5	16	4	학생	0	○	○	○	○
6	69	2	막노동	0	×	×	○	○
7	37	3	음식배달	0	○	○	○	○
8	71	2	-	0	×	×	×	○
9	42	4	막노동	2	○	○	○	×
10	15	4	학생	0	○	○	○	○
11	55	4	수퍼운영	0	○	○	○	○
12	40	2	제과점근무	0	×	×	○	×
13	67	3	조립산업	1	○	×	○	×
14	15	6	학생	0	○	○	○	○
15	38	4	이사용달	2	○	○	○	○
16	17	2	학생	0	○	×	○	×
17	78	2	-	0	×	×	○	○
18	49	3	일용직	1	○	○	○	○
19	55	4	직장	2	○	○	○	○
20	76	2	-	0	×	×	○	○
21	70	2	자녀	0	○	○	○	○
22	20	1	아르바이트	0	○	○	○	×
23	15	4	학생	0	○	○	○	×
24	69	3	폐지수집	0	×	×	○	○
25	69	3	금리이자	0	○	○	○	○

주: 나이/성별: 피면접자; 주소독자: 피면접자와의 관계로 표기; 가족수: 동거가족수; 직업: 주소독자의 직업; ○: 보유, ×: 미보유

## 2. 판자촌 주민의 인터넷 이용 행태

면접 결과 인터넷 이용자의 두드러진 인구학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피면접자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30대 이하의 젊은이들이었다. 이들 중에는 학생(5명)이 주류를 이루었고, 자영업자 1명, 단순근로자(음식점배달원) 1명, 주부 1명, 무직자 1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피면접자 중에서 유일하게 고령자인 70세 할머니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세대 간 생각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다른 노인들에게 정보통신 활용 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였다.

이 할머니는 동사무소에서 컴퓨터를 배운 남편으로부터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방법을 배웠으며, 카이스트 박사과정생인 아들로부터 틈틈이 사용방법을 배운다고 말하였다. 피면접자들이 학생인 경우, 부모님들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여부에 대해 ‘부모 모두 인터넷 이용법을 잘 알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생활패턴이 달라 부모님이 컴퓨터를 사용하지는지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16세 여학생)도 있

었다. 두 자녀를 둔 개인용달사업을 하는 38세의 여성은 ‘컴퓨터가 한 대여서 자녀가 서로 하려고 다투어서’ 본인에게 필요한 것만 이용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말하였다.

인터넷 이용자의 이용활동 또는 용도는 업무나 학습 등과 같이 구체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락 등의 용도가 주를 이루었다. 구체적인 용도로는 ‘육아 정보검색’ (35세 여성), ‘인터넷 강의 청취’ (15세 여학생), ‘인터넷 뱅킹’ (70세 여성, 20세 남성), ‘인터넷 쇼핑’ (35세 여성, 17세 남성), ‘용달 광고 게시 및 길찾기’ (38세 여성), ‘구직 정보검색’ (20세 남성) 등이었다. 이들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이용자들이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용도는 음악, 영화, 게임, 뉴스 등의 오락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 소통의 용도로도 사용되었다(35세 여성, 20세 남성, 35세 여성, 15세 남학생). 이들 중 20세 남성 무직자는 스마트폰을 전화용으로만 사용하고 인터넷뱅킹이나 오락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한다고 말하였다.

인터넷 이용용도에 대한 면접 내용에서 판자촌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은 ‘택배 지양’이다. 면접에서 37세의 남성, 15세의 남학생은 ‘택배는 되도록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지리적 접근성으로 볼 때 오히려 인터넷 쇼핑을 통한 택배 배달이 용이할 것이 예상될 수 있으나 이러한 면접결과와는 ‘도시 판자촌’이라는 지역 주민의 독특한 경험적 특성에서 야기되어진 폐쇄성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졌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있는 내용으로 많은 피면접자들의 진술에서 이곳 도시 판자촌 생활의 독특한 특성들이 제시되었는데, 피면접자 중 5명은 ‘이 지역이 관광지화 되어 사진을 찍으러 오는 외부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생활에 있어서 가장 불편’한 것으로 언급하였다. ‘관광지화 되어 기웃거리는 이들이 많다’ (35세 여성), ‘소음이 많다’ (69세 여성), ‘영화촬영으로 통제가 잦다’ (68세 남성), 심지어는 ‘관광지화 되어 자녀가 불편을 받을까

걱정’ 하는 피면접자(35세 여성) 그리고 ‘사진 찍으러 오는 동갑내기들에 대한 짜증’ 섞인 반응(17세 남학생) 등도 있었다.

인터넷 이용의 용이성 등에서도 피면접자들 사이에는 상당한 변이가 있었다. 35세 여성이나 10대 및 20대 피면접자의 경우는 인터넷의 이용에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외의 피면접자들은 구체적인 인터넷의 응용 이용방식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였다. 예컨대, 개인용달사업을 하는 38세의 여성은 동사무소나 은행 업무는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지만 용달업을 위해 개인홈페이지 제작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 15세 남학생은 부모님들이 현재 활용의지도 없고 필요도 느끼지 않지만 인터넷 뱅킹(공과금 납부용)을 원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70세 여성의 경우는 동네 친구들과 인터넷을 통한 소통을 하고 싶지만 ‘다들 인터넷 사용에 관심이 없고 활용도 못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 3. 판자촌 주민의 정보통신기술 비이용 형태

면접 결과, 인터넷 비이용 이유는 결핍관점의 이유(10명)가 선택관점의 이유(5명)보다 많았다. 결핍관점의 이유를 제시한 피면접자 중에서 여성(8명)이 남성(2명) 보다 많았고, 연령대도 60세 이상(모두 67세 이상)이 50대 이하(3명) 보다 많았다. 결핍관점의 이유 중에서도 경제적 결핍(4명) 보다는 인지적 결핍(6명)에 따른 비이용이 다소 많이 확인되었는데, 각 결핍사유에 대한 성별 및 연령의 분포는 비슷하였다. 선택관점의 이유를 제시한 피면접자의 경우는 성별 그리고 연령대별로 고르게 분포되었다.

#### 1) 결핍관점에서의 비이용

##### (1) 경제적·물질적 결핍

피면접자들은 경제적/물질적 결핍의 이유들을 대

체로 매우 포괄적으로 ‘돈이 없거나 많이 든다’ 라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면접자들이 제시한 비이용 이유들은 서로 다른 차원을 보인다. 가장 포괄적인 사례는 경제사정으로 이용 자체를 회피하는 것으로서, 68세의 여성 노인은 ‘생활이 어려워 필요 없다’고 딱 잘라 말하였다. ‘이용=추가요금’이라는 등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피면접자들도 있었다. 이들 중 42세 여성은 ‘이용하면 다 돈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76세의 남성 노인은 ‘이것저것 추가요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나는 알지도 못하고 생각 없다. 하지만 아이는 수리비 때문에 컴퓨터를 못 고치고 있다’고 말한 67세 할머니의 사유도 포함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sup>8)</sup>

경제적/물질적 결핍으로 인해 비사용하고 있을지라도, 비사용자들이 정보통신에 대한 인식 자체도 결핍하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면접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42세 주부나 67세 할머니와 같이 사용 용도나 사용법을 모르는 비이용자도 있었지만, 68세 할머니나 76세 할아버지와 같이 용도도 알고 사용법도 알고 정보통신 교육지원제도도 알고 있는 비이용자도 있었다. 그럼에도 경제적 결핍을 이유로 비이용하는 피면접자들 중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용도 등에 대한 인식이 있는 비이용자들은 구체적으로 그 용도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모두 인터넷의 ‘용도를 알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반응이었다. 아울러 지금 인터넷을 통해 하고 싶은 용도가 있다고 말한 피면접자도 없었다.

가구내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인터넷의 사용 용도나 사용법을 모르는 비이용자가 될 수 있다(42세 주부; 67세 할머니). 특히 이 42세 주부는 2명의 고등학생을 두고 있고 자녀들이 ‘가르쳐 주지만 크게 쓸

일이 없고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또한 ‘다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하지만 정부가 ‘최대한 무상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과 연관 지어 보면, 경제적 결핍과 이용욕구의 부재는 인터넷 비이용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결핍으로 인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지 않는 비이용자들은 이러한 결핍이 해소 또는 완화되면 비이용자에서 이용자로 전환할 개연성도 높아 보인다. 피면접자 가운데, ‘정보통신 지원은 필요 없다’라고 말한 68세 할머니를 제외하고는 모두 ‘컴퓨터나 인터넷이용 지원’이나 ‘교육지원’을 원하였고 그것도 ‘최대한 돈이 안 드는 무상지원’을 원하였다. 이용을 위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 ‘사용료 기본료를 제외한 추가 요금 지원’을 요구한 피면접자(76세 할아버지)도 있었다. 아울러 주거지의 특성과 경제적 이유가 맞물려 76세 할아버지는 ‘정보화 교육 장소까지의 이동을 위한 교통비의 지원’까지 원하였다.<sup>9)</sup>

끝으로 경제적 결핍에 의한 비이용자들이 정부지원에 대해 느끼는 것은 매우 양분된다. 일단의 피면접자들은 컴퓨터 및 인터넷 지원, 무상교육지원, 인터넷 기본사용료를 제외한 추가 비용의 전액 지원, 나아가 정보화교육장 왕복 교통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 반면, 또 다른 일단의 피면접자들은 정보통신기술관련 어떤 지원이든 필요없고 오히려 노인에게 대한 현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 (2) 인지적 결핍

인지적 결핍의 이유로 비이용하는 피면접자들은 공통적으로 연령이 40대 후반 이상이었다. 또한 6명 중 막노동 일을 하거나 무직인 사람들이 4명이었고 직장을 다니거나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2명이었다.

8) 이 할머니의 아이는 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을 통해 컴퓨터를 배우는 중이나 주당 1회 교육비가 9만원이어서 부담된다고 말하였다. 이런 점에서, 할머니의 비이용 응답 역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비이용의 포괄적 사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9) 이 할아버지가 사는 집과 ‘인근 복지관이나 주민센터까지의 거리는 도보로 약 20분 거리이나 지형이 가파라서 버스를 이용한다. 그러나 버스는 요금을 내야 해서 방문하지 않는다’고 할아버지는 말하였다.

이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배워서 얻는 것이 배울 때의 고통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74세 여성), ‘인터넷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어서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것을 이용할지 모르겠다. 배워 보고 싶은 데 자신이 없다’(49세 여성), ‘컴퓨터나 인터넷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한 두 번 하다 안하게 되면 잊어 버린다. ... 직접 (오프라인상에서) 하는 것이 더 믿음이 가고 ... 다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잘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 소외되어 배우려 들기 어렵다’(55세 여성), ‘복잡해서 포기했다’(69세 여성) 등으로 제시되었다.

피면접자들은 인터넷의 용도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었다. 컴퓨터를 배운 친구들로부터 컴퓨터 외에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나이에 비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74세 할머니, 인터넷에 무지하다면 서도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도, 인터넷부동산, 인터넷쇼핑 까지 알고 있는 49세의 여성, 다른 것은 너무 복잡해서 하지 않지만 인터넷을 이용해 노래를 듣는 55세 여성, 컴퓨터도 인터넷도 없지만 ‘인터넷을 통해 주문하고 택배로 받는 것’은 알고 있는 69세 여성 등 인지적 결핍은 용도에 대한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 그 자체와 관련된 어려움, 두려움, 불편함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인지적 결핍의 이유에 의한 비이용자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서툴버스가 있다면 배워보고 싶다는 49세 여성을 제외하면, ‘배우는 고통’(74세 여성)이든 ‘금방 잊어버리거나 온라인에 대한 불신’(55세 여성)을 비롯해 모든 피면접자가 향후 이용의도가 없음은 물론 배우고 싶은 의향도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 지원(교육, 컴퓨터 및 인터넷 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피면접자들은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였다.

## 2) 선택관점에서의 비이용

선택관점에서 인터넷을 비이용하는 피면접자들은 40세 남성과 55세 남성을 제외하면 모두 60대 후반의 노인들이다. 55세 남성을 제외하면 직업은 제과

점 근무나 경비원, 막노동, 무직 등이다. 성별로는 남녀간 같은 비율을 보인다.

피면접자들의 비이용 이유는 크게 보면 자신의 생활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제과점 근무 후 새벽에 귀가하는 40세 남성과 같이 ‘내 삶에 있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69세 여성과 같이 ‘미용기술과 같은 실질적으로 사는 데 관련되는 기술을 더 배우고 싶다’거나, 78세의 남성과 같이 ‘늙어서 뭘 배우겠느냐?’ 다소 완화된 표현이지만 또 다른 69세의 여성과 같이 손녀나 남편이 있는데 ‘내가 꼭 배울 필요는 없다’ 등의 반응들은 비이용의 이유가 인터넷이 자신의 삶속에서 실질적 용도가 없음을 표현하는 것들이었다. 그밖에 인터넷의 용도도 알지만 ‘걸어서 다니는 것이 편하고 집에만 있게 될까봐’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76세 할아버지도 있었다. 이와는 달리 정보화교육을 받았지만 그 교육내용이 너무 기초적인 것이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교육, 민원, 건강 등에 관한 생활정보를 이용하지는 못한다는 69세 할머니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실질적 용도의 결여나 인터넷 이용 자체가 불필요하기 보다는 자신이 직접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를 더 내보인다. 이들의 경우는 자신의 인터넷 이용을 대신해 줄 대리인(Surrogates)이 존재하여 ‘손녀가 컴퓨터를 잘하고 남편 또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69세 여성), ‘자녀들에게 부탁하면 되기 때문에’(55세 남성) 등과 같이 인터넷을 간접이용(Use-by-proxy)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을 비이용으로 이끌었던 것 같다. 이 두 피면접자들 사이에서도 비이용의 작으나마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이 69세 할머니는 ‘학교 다니는 손녀를 통해 인터넷이 저렴하다는 것을 알아. 손녀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다고 말하여 대리인의 존재가 지배적인 이유가 된 데 비해, 상기 55세 남성은 ‘만약 필요했으면 애들에게서라도 배웠을 것’이라고 하여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는 인상을 더 크게 받았다. 이와 반대로, 가구내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할 줄 아는 가족(예, 남

편)이 있어도 ‘그게 없기 때문에 쓸 기회가 없고, 그렇지만 크게 필요하지 않아서 다른 곳 까지 가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69세 할머니도 있었다.

선택관점의 이유로 비이용하는 이들은 ‘활용의사도 없고 용도도 모르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인터넷의 용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거나, 정보화교육에 대해서도 알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인터넷 이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상에서 선택관점의 이유에 의한 비이용자들에 대한 면접결과는 이들 중 3명(미용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69세 할머니, 40세 남성, 78세 할아버지)의 경우 가구내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점(면접 시 이전에는 보유하고는 있는지 묻지 않았다)에서 선택관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시된다. 즉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의 부재가 이들이 비이용자가 되었다는 경제적 결핍관점의 이유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핍관점에서의 비이용 이유나 태도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도 발견된다.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이들의 경우 비이용의 이유로 ‘경제적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과, 모두 인터넷에 접근가능하다면 명확한 ‘이용 용도’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예컨대, 78세 할아버지는 필요한 경우 모두 도보로 이용하지만 ‘인터넷 뱅킹’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또한 정보화교육에 대한 의지도 대부분의 피면접자들에게서 발견된다. 78세 할아버지와 같이 활용의사가 없는데 ‘만약 가르쳐 준다면 배워 보겠다’는 미온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69세 할머니와 같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 다른 곳까지 가서 사용하지는 않지만 ‘컴퓨터 강습도 나가고 싶으나 실천이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40세 남성과 같이 인터넷의 용도도 다

알면서 이용할 의사도 배울 의사도 없지만 ‘공짜로 해주고, 다양한 시간대에 교육을 해준다면’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었다.

#### 4. 면접결과의 논의

이 연구는 도시판자촌 주민들의 정보이용 및 비이용 행태에 관한 다음 3가지 가정을 면접조사방법을 통해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는 도시판자촌은 정보통신구조에서 근본적으로 배제된 지역이라는 가정이다. 둘째는 도시판자촌 주민은 저소득층으로서 동질적 정보행태를 보인다는 가정이다. 셋째는 도시판자촌 주민 중 정보통신기술 비이용 행태는 결핍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가정이다.

첫 번째 가정은 면접결과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면접자들의 주거지는 판자촌과 같은 도시판자촌이지만 <표 2>에서 보듯이 컴퓨터, 인터넷연결, 핸드폰 및 스마트폰 등의 보유비율이 68-96%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보급률은 서울지역 전체의 보급률에 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일 수는 있으나, 이들 지역이 정보통신구조에서 근본적으로 배제된 지역(Dordick, et al., 1969; Sassi, 2005)이라고 말하기에는 높은 수준이다. 앞서 면접결과 분석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면접 지역의 정보통신 인프라는 취약점을 지닌다. 예컨대, 2-3개 가구를 묶어서 인터넷선을 활용<sup>10)</sup>한다거나 와이파이가 서비스가 안되거나 불완전한 경우<sup>11)</sup>와 같은 구조적 문제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한편 면접에서 보유 컴퓨터의 성능이나 최근모델인지의 여부는 질문하지 않았으나 대다수 피면접자의 경우 컴퓨터 성능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면접 결과, 컴퓨터 보

10) 면접시 한 피면접자는 세 집이 같은 인터넷선을 사용하도록 설치를 해놓아서 그 중 한 집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두 집까지도 모두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11) 이 문제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피면접자에 의해 제기된 문제로서, 경제적 사정으로 기본료를 이용하는 경우 정보이용료가 부과되지 않는 와이파이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정보통신구조에서 부분적으로 배제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 국한하더라도 와이파이의 제한적 이용은 특정 지역의 문제라기 보다는 전반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이 더 실제적이다. 심지어 이 글의 연구자들이 근무하는 학교에서조차도 와이파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유 가구 중 컴퓨터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1개 가구, 컴퓨터가 오래되어 고장이 자주 난다는 1개 가구를 제외하면 컴퓨터에 대해 불만을 표한 피면접자는 없었다. 그러나 면접이 이루어진 지역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보통신의 물리적 구조의 근본적 배제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보다는 오히려 결핍 또는 선택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물리적 정보통신구조의 배제주장은 그동안 정부의 정보화 노력을 통해 도시지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정보화수준이 높다(김병록, 2001; 이성우 외, 2004; 김걸 외, 2010)는 점에서도 기존의 도시중심부와 도시주변부 이분법적인 정보격차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둘째의 가정 역시 지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먼저 물리적 세계에서는 판자촌지역의 관광지화에 따라 타지 사람의 출입을 다양한 이유에 의해 거부하는 '폐쇄적 태도'를 보이지만, 오프라인 정보세계(장덕현, 2006)와는 달리 온라인 정보세계에서 이들 주민은 보다 '개방적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판자촌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삶의 조건은 매우 다양하였으며(박병현, 1994), 정보통신기술 즉 인터넷의 접근성이나 이용 여부 역시 획일적으로 구획할 수 없다. 또한 적어도 본연구의 대상이 된 판자촌 주민의 경우, 이용과 비이용의 구분이 분명히 존재하면서도 이의 구분이 상당히 명확치 않음도 발견되었다(Selwyn, 2006). 인터넷의 접근성 역시 동거가족 중 취학자녀의 유무를 제외하면 성별, 연령, 직업, 주거형태 등 어떤 것에 의해서도 일관성 있게 설명되지 않았다. 다만, 피면접자가 학생인 경우는 거의 대부분 컴퓨터와 인터넷의 높은 접근성과 이용도가 일관적으로 발견되어, 다른 연령층과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가구내 이러한 취학자녀의 유무는 물론 가족 내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가능자의 존재 여부는 이용 또는 비이용을 일관성 있게 설명해 주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Rhee, et al.(2004)의 연구결과와 다르며 오히려 Selwyn(2006) 등의 연구결과에 더 가깝다. 특히 이용 활동의 내용 및 이용활동의 지속성 등

을 고려할 때, 이용과 비이용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되었다(Selwyn, 2006). 인터넷 이용자의 이용 용도도 뉴스, 음악이나 영화 내려받기, 날씨, 게임 등과 같은 오락용도는 모든 인터넷이용 피면접자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메신저나 이메일 등의 소통용도도 많은 이용자들에게서 나타났다. 생활과 직결된 구체적인 용도의 이용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따라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Selwyn(2006)의 발견사실과는 상이하였다.

끝으로, 세 번째의 가정은 상당한 수긍력은 지니지만, 다른 대안적 설명과 결합될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면접 결과 절대적으로 많은 수의 비이용자가 문헌들에서 제시된 결핍요인들에 의한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그 중에서도 판자촌 자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경제적 결핍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이 확인되었다. 경제적 결핍 관점에서 보면 비이용자들에게서는 '이용=돈듦', '돈듦=이용회피'(Murdock, et al., 1996, in Selwyn, 2003: 102)라는 등식이 발견되었다. 소득원이 불안정적이거나 최하층에 속한 고령자나 여성들의 경우 비이용이 높아진다는 Morris, et al.(2007)의 연구결과도 본 연구에서 뒷받침된다. 그러나 가구의 소득수준은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행태에도 영향을 준다는 정재기(2011)의 주장은 본 연구에서 부분적으로만 뒷받침된다.

인지적 결핍에 의한 비이용 행태의 기저에는 경제적 결핍이 상당부분 깔려 있음이 발견되면서도, 적어도 본연구의 맥락에서 보면 경제적 결핍에 의한 비이용과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인지적 결핍으로 인한 비이용자는 연령이 40대 후반 이상이고 직업도 막노동이나 무직인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Morris, et al.(2007)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이들이 제시한 주된 비이용 이유들인 '무관심', '배울 때의 고통', '자신감 결여', '사용능력 부재', '컴퓨터나 인터넷에 대한 무지', '복잡성', '금방 잊음' 등은 문헌(Morris, et al., 2007; Rogers, 2003; Schmacher, et al., 1993; van Deursen,

et al., 2010)에서 제시된 것들과 상당부분 일치하였다. 접근성의 제한 또는 결여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관심의 결여 같은 인지적 결핍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Morris, et al.(2007)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가족친구 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의 존재 여부가 이용 또는 비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들(Rhee, et al., 2004; Paul, et al., 2005; Morris, et al., 2007)은 본 연구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지지된다.

경제적 또는 인지적 결핍 요인들이 존재함에도 선택의 요인들에 의한 '비이용'이 본 연구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Selwyn(2006)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다만 가구내 컴퓨터 또는 인터넷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선택의 요인들을 파악한 Selwyn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선택 요인들에 의한 비이용자들로 분류하여 논의한 피면접자들 중에는 오히려 가구내 컴퓨터나 인터넷 접근성이 부재한 경우가 더 많았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선택관점의 확인 또는 검증은 불가능하였다. 선택관점의 비이용 이유(즉, 자신의 일상삶과의 불합치)들은 Selwyn (2006)에서의 발견된 결과와 매우 흡사하다. 예컨대 '내 삶에서 크게 중요치 않다', '실질적으로 사는데 관련된 기술을 배우고 싶다', '내가 꼭 배울 필요는 없다', '직장일 때문에 새벽에 귀가한다'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Selywin(2006)에서와 같이 가족이나 주변에 대리인이 존재함으로써 비이용하는 간접이용(Use-by-proxy)도 발견되었다. 이는 인지적 결핍에서 이용촉진요인으로 제시되는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Rhee, et al., 2004; Paul, et al., 2005; Morris, et al., 2007)에 대한 상반되는 증거이기도 하다. 선택관점의 이유에 의한 비이용자들의 경우 비이용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인지적 어려움'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자신의 이용의향에서 구체적인 이용용도를 갖고 있었다는 점,<sup>12)</sup> 그리고 경제적 결핍에 의

한 비이용자와 달리 '무상지원' 등이 지배적인 요구 사항이 아니었다는 점 등도 결핍관점과의 차이를 보이는 점으로 선택관점에 의한 비이용의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 V. 결론

본 연구는 도시판자촌 주민들의 정보이용 및 비이용 행태에 관하여 세 가지 물음, 즉 도시판자촌은 정보통신구조에서 근본적으로 배제된 지역인가? 도시판자촌 주민은 저소득층으로서 동질적 정보행태를 보이는가? 그리고 도시판자촌 주민 중 정보통신기술 비이용 행태는 결핍요인에 의해 설명되는가? 라는 물음에 답하고자 하였다. 이 물음들에 답하기 위해 이 연구는 서울 3개 지역 판자촌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 중에서 인터넷의 접근성 및 이용·비이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면접 결과를 통해, 이 연구는 전통적인 도시 내 도심·시내 지역과 판자촌 지역에 대한 정보통신구조의 이분법적 내포 대 배제, 도시 판자촌 주민들의 저소득층으로서의 동질적 정보행태, 그리고 결핍에 의한 비이용 등의 설명력은 지지받지 못하거나 제한적임을 확인하였다. 정보통신구조에 있어서 도시 내 도심·시내 지역과 판자촌 지역에 대한 전통적인 이분법적 사고는 본 연구에 포함된 판자촌 지역에서의 주민들 사이에 컴퓨터나 인터넷의 접근성 및 이용이 상당부분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설득력을 갖기가 어려웠다. 도시판자촌 주민들의 저소득층으로서의 동질적 정보행태 역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용 및 비이용, 이용용도, 이용자의 사회·경제·인구학적 분포에서의 다양성 또는 일관성 결여 현상에 의해 지지되기 어려웠다. 결핍에 의한 비이용의 설명력은 매우 높았다. 그럼에도 결핍의 관점과 달리 선택관점, 즉 삶의 부

12) 이 연구를 위한 면접 조사에서 피면접자들에게 이러한 의향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합도에 의한 비이용의 가능성도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물음에 답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결핍관점에서 제시된 이용 및 비이용의 요인들(예, 사회적지지, 연령, 직업 등)의 설명력이 일관적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 밖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는 다른 비이용의 요인들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제에 대한 탐색이라는 연구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반드시 이러한 연구목적 때문이지는 않지만 지역 주민의 정서적 특성을 감안하여 질적 연구의 방법론적 엄밀성을 상당 부분 완화하여 조사하였다. 이 점에서 피면접자의 선정과정에서의 편의성, 면접 시 물음의 제한성, 면접대상지역 표출의 자의성이라는 방법론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sup>13)</sup>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적 엄밀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관광객의 급증 그리고 각종의 조사자의 빈번한 방문 등으로 면접조사에 상당한 경계심 또는 회피성향을 보인 판자촌 주민들을 가급적 가장 비개입적인 방법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론적으로도 본 연구는 판자촌 주민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설명적 논거를 탐색적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결핍관점과 선택관점을 사용하였으나, 특히 선택관점을 면접대상, 즉 판자촌의 맥락으로부터 결핍관점과 의미미하게 분리할 수 있는 엄밀한 논리체계는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이론적 방법론적 한계점은 이 연구의 면접 조사결과와 분류 및 해석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 연구가 지닌 이러한 제한 속에서도, 본 연구는 적어도 판자촌의 맥락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및 비이용에 대한 이론적 그리고 실제적 함의를 지닌다. 이론적으로는 먼저 선택관점의 요인들을 결핍관점의 요인군에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실제현실에서 구분해

내기 위한 개념화 노력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비이용자의 경우 삶속에서 처한 선택의 관점 자체에 대한 이론적 그리고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 이러한 개념화 노력에서 중요한 것은 비이용의 연속선적, 또는 계층적 논의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용-비이용, 부분비이용-완전비이용 등과 같은 양극적인 논의보다는 양극 사이에 펼쳐진 선상에서 다양한 길이 또는 성격을 지닌 연속선들로 구성된 연속계(A Continnum or System of Continnum)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보통신기술의 이용비이용에 대한 구조적 제한(Structure)과 행위적 자유(Agent)에 대한 균일하고 적절한 학문적 관심이 요구되며, 이러한 구조와 행위를 연결하는 중간고리에 대한 학문적 연구들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용과 비이용에서 그 내용적 측면(즉 활동 또는 이용 유형 또는 대상 등)에 대해 일상생활과의 직접적 관련성에 보다 초점을 둔 논의가 요구된다.

실제적 의미에서는 첫째 저비용 또는 무비용의 정보통신기술 또는 관련 교육의 제공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현재 정부가 무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일부 정책대상에게 저비용 또는 무비용 기기 및 이용비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러한 정부의 지원제도가 실질적인 정책대상들에게 전달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둘째 특히 판자촌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기술의 제공 또는 교육의 제공이 요구된다. 예컨대, 교육에 있어서는 판자촌지역의 지리적 특성(즉 고갯길, 산중턱 등)에 따라 해당 지역내 상설 또는 비상설의 정보화교육장을 개설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13) 피면접자를 편의 표출한 것은 '낯선 타지인'에 대한 회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선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 첫날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일정 가구 간격(세 가구 건너 한 집)으로 피면접자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경계심', '집안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경향' 등으로 조사협조를 부탁하기도 전에 접촉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집 앞에서 쉬고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주로 문전 면접을 하였다. 면접시 물음 역시 교육수준, 가구소득 등 피면접자가 꺼려 가구주의 직업을 묻는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 본 조사에서는 인구사회경제학적 정보를 포함한 '포괄적 정보'를 얻기 보다는 연구주제에 직결된 '집중적 정보'를 얻는 방식을 취하였다. 조사대상지역 선정에 있어서도 관광객(사진찍는 사람들 등)의 빈번한 왕래에 따른 조사에 거부감이 다소 낮은 지역을 가급적 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판자촌 주민들(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들)의 이동상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된 부수적 지원(예, 교통수단, 교통수단의 요금 등)을 판자촌지역 정보화교육장에서 내재화할 수 있다. 운영방식은 기존의 교육장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육훈련강사를 기업이나 대학생 자원봉사자로부터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정보화 교육은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맥락(주민들의 특성, 요구수준, 활용희망용도 등)에 부합하도록 다면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기존의 교육장 강사 중심의 정보화 교육에서 보다 신축적이고 실수요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자원봉사의 활용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IT 전문자원봉사자들과의 연계를 통해 정보통신이 그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의미있는 내용과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이로써 비이용자들이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보통신기술의 제공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그 보급 확대에 따른 지원가능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면접결과, 정부의 정보통신기술의 지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사회보급의 추세와 어느 정도 조화될 수 있는지를 고민할 시점이 다가 오고 있다. 면접결과에서도 보듯이 이미 통신수단으로서 전화가 아닌 핸드폰이 이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보편화되어 있고(비록 집전화를 주로 사용하고, 외부에 나오면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스마트폰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기의 소유여부가 아니라 이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특히 가상에서까지 이용할 수 있는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정부가 이러한 스마트폰의 비용을 지원해야 하나? 해야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가? 등의 물음은 앞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주제라고 여겨진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교육의 내용과 대상기술도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주민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이용료의 지

원, 낡은 컴퓨터의 교환을 위한 기기지원 등을 넘어서, 상당수가 스마트폰 및 이의 이용요금의 지원을 요구하는 점에서 보다 중장기적으로 필히 정책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넷째, 판자촌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저소득층의 정보통신 이용촉진을 위한 지원은 이들의 삶과의 적합성을 고려하는 보다 초점화된 방식에 대한 개발이 요구된다. 이는 비이용자를 '현재적 또는 잠재적 사회문제아'로 보기 보다는 이들의 삶속에서 비이용을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와 함께 보다 세부적인 세부부문화(Sub-segmentation) 접근이 필요하다.

## ■ 참고문헌

- 김길·김영호 (2010).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분석 및 격차 완화방안."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3(3): 51-61.
- 김병록 (2001). "전남도 지역주민간 정보격차." 「광주전남행정학회보」, 8: 147-163.
- 김수현 (2011). "도시재개발 사업의 변화: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 도시재개발지역과 교회문제 대책위원회. '도시재개발에 따른 지역과 교회 문제' 2차 간담회. 2011년 6월 16일. 서울.
- 김은정·이재웅·양희인 (2008). "우리나라 정보격차실태와 정책적 함의: 2007년도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1(3): 75-101.
- 김주찬·민병익 (2006).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보격차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3(1): 115-142.
- 김태일·이경희·이재웅 (2007). "정보 불평등 수준 및 영향 요인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6(4): 223-246.
- 박병현 (1994). "도시빈민의 생활실태과약과 복지대책수립에 관한 연구: 부산시 동구 수정 3,4동과 범일 6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23: 75-116.
- 이성우·지우석·정진규 (2004). "서울시 정보화수준의 자치구별 격차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5(1): 1-26.
- 장덕현 (2006). "일상을 통해 본 부산지역 도시 저소득층의 정보세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4): 443-462.
- 정연우 (2010). "무허가 주거지의 성격과 의미 변화에 대한

- 연구: 서울 송파구 개미마을의 사례.” 「한국문화인류학」, 43(3): 125-160.
- 정영호·이혜미 (2010). “다면적 정보 격차의 변화와 그 요인: 2005~2009년 시계열 분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3): 227-261.
- 정재기 (201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행태: 생활시간조사의 활용.” 「한국사회학」, 45(5): 197-225.
- 조문영 (2001). “빈민지역에서 ‘가난’ 과 ‘복지’ 의 관계에 대한 연구: 난곡(난곡)을 중심으로.” 「도시연구」, 7: 227-261.
- Attewell, Paul (2001). “The First and Second Digital Divides.” *Sociology of Education*, 74(3): 252-259.
- Van Dijk, J. (2000). Widening Information Gaps and Policies of Prevention. In K. Hacker & J. van Dijk (eds.), *Digital Democracy: Issues of Theory and Practice*, 166-183. London: Sage Publications.
- Dordick, Herbert S. & Chesler, Leonard G. & Firstman, Sidney I. & Rudy, Bretz (1969). *Telecommunications in Urban Development*.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 Gilbert, Melissa R. & Masucci, Michele & Homko, Carol & Bove, Alfred (2008). “Theorizing the digital divid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use frameworks among poor women using a telemedicine system.” *Geoforum*, 39(2): 912-925.
- Lash, S. (1994). “Reflexivity and its Doubles: Structure, Aesthetics, Community.” In Ulich Beck & Anthony Giddens & S. Lash (eds.), *Reflexive Modernization*, 110-173. Cambridge: Polity Press.
- Lee-Gosselin, M. & Miranda-Moreno, Luis F. (2009). “What is different about urban activities of those with access to ICTs? Some early evidence from Quebec, Canada.”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17: 104-114.
- Morris, A. & Goodman, J. & Brading, H. (2007). “Internet use and non-use: views of older users.” *Universal Access in the Information Society*, 6(1): 43-57.
- Paul, G. & Stegbauer, C. (2005). “Is the digital divide between young and elderly people increasing?.” *First Monday*, 10(10).
- Payne, Geoff (2006). *Social Divisions*. 2nd Edition. UK: Palgrave Macmillan.
- Rhee, K. & Kim, W. (2004). “The adoption and use of the internet in South Korea.” *JCMC*, 9(4): 1-16.
- Rogers, Everett M. (2003). *Diffusion of Innovations*. 5th edition. New York: Free Press.
- Sassi, S. (2005). “Cultural differentiation or social segregation? Four approaches to digital divide.” *New Media & Society*, 7(5): 684-700.
- Schneider, A. & Ingram, H. (1993). “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s: implications for politics and poli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2): 334-347.
- Schumacher, P. & Morahan-Marín, J. & Olinsky, A. (1993). “Computer experience, attitudes, computer and mathematical anxiety, and grades of MBA students.” *Collegiate Microcomputer*, 11(3): 183-193.
- Selwyn, N. (2003). “Apart from technology: understanding people’s non-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everyday life.” *Technology in Society*, 25: 99-116.
- Selwyn, N. (2006). “Digital division or digital decision? A study of non-users and low-users of computers.” *Poetics*, 34: 273-292.
- Van Deursen, A. & van Dijk, J. (2010). “Internet skills and the digital divide.” *New Media & Society*, 13(6): 893-911.
- Wilson, K. R. & Wallin, J. S. & Reiser, C. (2003). “Social stratification and the digital divide.”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21(2): 133-143.